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은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Factors Affecting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of Welfare-to-Work Recipients: Focused Social Adaptation Program

Eun Jung Lee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탈수급탈빈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근로장벽 특성상 자활 효과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프로그램 중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효과 및 그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이 검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효과와 사회적 자활 효과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으로는 요보호가구원수(-)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사회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 조직유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자활효과 측정의 필요함을 밝히고 심리사회적 다양한 근로장벽을 지닌 자활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활사업,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사회적응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s of welfare-to-work programs that helped welfare recipients promot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focused on social adaptation program for the hardest-to-employ poor with psychological and social work barriers. This study relied on data from mandatory social adaptation program participants among community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 in nationwide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1 in South Korea.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for this study. As a result, among participants, there were slightly than moderate level on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effects.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program had positive effect both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whereas that of health service only had positive effect on social self-sufficiency. Also, thes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effects differed between the number of needy family in household, type of organization and degree of satisfaction of life. This study suggests that discussion of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to-work program and intervention that target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ocial needs for recipients with work barriers.

Key Words : Welfare-to-Work, Emotional Self-sufficiency, Social Self-sufficiency, Social Adaptation Progra

Received 6 January 2014, Revised 13 February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Eun Jung Lee(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Email: ejlee@b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문제제기

2000년에 한국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권리와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근로연계복지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자활프로그램은 기대했던 성과와 달리 수급자의 탈수급탈빈곤에 한계를 보이고 복지 의존이 증가되어 심층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다. 자활프로그램의 탈수급율은 2009년 7.8%, 2010년 9.0%, 2011년 10.0%로 자활 성과를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낮은 자활성공률에 대해서 자활지원제도상 소득이 늘수록 급여가 줄어들게 설계된 보충급여방식 문제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이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해명이 있어 왔으나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간 자활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과연 자활의 성과가 무엇인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논의는 부족하였다.

자활은 과거부터 사회복지 수혜를 벗어나거나 또는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의 자립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1]. 우리나라 자활사업 영역에서도 수급탈피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는 것을 볼 때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활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실무자,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개념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이란 용어는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목표에서 경제적 개념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2].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간 자활사업에서 경제적 성과만을 강조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자활 특성이 배제된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3][4][5]. 즉, 자활참여자가 대부분이 중고령, 저학력, 여성이면서, 근로의욕, 대인관계, 양육부담, 정신건강 등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근로장벽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원활한 근로 이행을 위해서는 Wort First 관점에서의 일방적인 직업기술훈련보다는 인적,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5].

이러한 점에서 자활사업의 빈곤탈피 이외에 또 하나의 자활 성과로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이 자활 요소로서 강조되어야 필요성이 있겠다. 특히 이러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개념은 경제적 자활의 이전 단계로서 자활사업에서 다루어져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된다[6]. 왜냐하면 그동안 자활사업의 성과로서 수급탈피나 취업,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과정이자 자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결국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5][6][7][8]. 또한 이러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이야말로 경제적 자활을 견인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11]. 결국 정서적, 사회적 자활은 숫자로 밝히기 어려운 성과이나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로써 자활사업 평가 논의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요소이다[21].

그러나 자활사업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자활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인데[5][11], 특히 세분화된 자활프로그램별 효과 평가는 거의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프로그램 중 가장 하위단계 프로그램인 사회적응프로그램¹⁾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심리사회적 기능 손상과 사회적 자원 부족으로 자활가능성이 가장 낮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자활의지미약’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느 자활프로그램보다 정서적, 사회적 자활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복합적 근로장벽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 관한 효과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활대상자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 관한 논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근로를 유인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십 여년간 자활사업 평가에서 자활성공률(즉, 탈수급율)이 경제적 관점에서 실패했다는 식의 지적은 많다. 하지만 그 원인은 자활정책, 자활참여자 특성, 경기불황 등이 다양하게 지적되는데, 즉, 소득이 늘수록 급여가 줄어들게 설계된 보충급여방식 및 근로유인제도 부족으로 탈수급이나 탈빈곤을 저해하는 정책상 문제나, 복합적 근로장벽의 자활참여자의 특

1) 자활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40여개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관련기관,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2002년부터 실시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2011년까지 운영되었고 2012년부터 자활사레관리 확충계획으로 대체되었다.

성, 세계경기후퇴에 따른 취·창업이 쉽지 않는 경기불황 등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성과 부진만으로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자활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보정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자활사업 성과에서 자활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자활만 강조해 온 측면이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정책입자, 연구자, 실무자,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개념은 아니었다. 결국 자활의 정책적 목적과 구체적 현실간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자활에 대해 합의적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들 대부분은 근로동기, 대인관계, 보호부담, 정신건강 등의 근로장벽이 복합적이고 중첩되는 특성을 갖는다[3][4][5]. 따라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자활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이다.

먼저, 정서적 자활이란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더 이상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립 의지[9]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활의지[10], 그리고 자립관련 요소들을 획득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태도의 변화[11] 등으로 자활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Philip(2009)[12]도 인간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개발 과정을 정서적 자활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자활 효과와 관련한 논의 결과들도 다양한데,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자활프로그램 참여 기간동안 범죄 감소, 근로 태도 향상,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과 같은 정서적 자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3]. Amy(2000)[14]는 수급자의 자활 효능감, 구직 효능감, 목표몰입 등의 심리적 요인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보다 복지수급탈피에 실질적인 예측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노동부 관할 취업대상수급자의 자활에 관한 연구[14]에서도 교육수준이나 자격증소유 등의 인적자본 변수보다는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자활사업의 탈빈곤 정책의 효과분석에서[8] 근로활동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형성, 생활 태도의 긍정적 변화, 자립관련 요소들의 제고 등을 정서적 자활로 설정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한편, 사회적 자활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관계망 향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자활을 탈빈곤의 의미보다는 안정된 삶에 도달하는 능력으로서 자활의 사회적 능력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적 자활은

활발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9].

이러한 사회적 자활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공공부조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4] 여성가구의 근로 이행은 여성가주 자신의 삶의 만족 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자활대상자를 한 연구에서[8] 자활사업 참여로 가족관계에서 불화의 감소, 가족 및 친지들의 우호적 태도의 변화, 가족 및 친지들의 원조 제고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개념과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활은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발성,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서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난 상황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자활은 대인관계 증진이나 가족관계 향상,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 관한 영향요인

2.2.1 개인 특성 관련요인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는 연령, 가구특성, 건강상태, 교육수준, 근로경험,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연령은 많은 기존 연구에서 자활에 대한 장벽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요 변인이다[10][15][19].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활에 이르기까지 소요기간이 늘거나 자활사업 탈피를 위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이 대체로 힘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가족형태가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특히 가족 중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아동보호가 필요한 요보호가구원이 근로장벽 요인으로 나타났다[16]. 셋째, 복지수급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는 지속적인 근로 장애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17][18][19]. 또한 미국의 1990-1993년, 1996년 공공부조 수급자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의 효과 분석에서 건강문제는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공부조의 비수급에서 수급으로의 이행에서도 건강문제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넷째, 복지수급자의 학력의 자활에 관한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서 교육수준은 소득 및 자활에 유의미한 결정적 요소라고 나타난 반면[10][15][19], 교육수준이 탈수급, 소득향상과 근로의욕과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상당히 있다[5][19][21]. 다섯째, 수급자

의 근로경험에 관한 자활 효과에 관해서는 과거의 근로 경험이 적을수록 실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다[18][19]. Cancian et al.(2002)[5]도 공공부조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과거 고용경력이 미약할수록 상시직 고용과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과거 근로경험과 자활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에서는[22], 여성수급자의 경우 노동시장분절이 강해 과거의 근로경험이 고용과 소득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수급자의 심리적 변인이 자활 효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나타났는데[18][23][24], 즉,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이 복지 의존을 낮추고 고용성과와 안녕감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 Vinokur(2007)[18]는 복지수급자 개인의 긍정적 레질리언스 변인으로 숙련도와 자기효능감이 근로장벽을 낮추고 고용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2.2.2 자활사업 특성 관련요인

자활사업 특성관련 요인으로는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자활기관 조직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소득효과와 근로의욕 효과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5]. 반면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자활 참여자의 태도변화 및 자립요소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없음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는데[8], 한국의 자활사업 조사대상자 평균 자활참여기간이 9.25개월(1년 미만자가 74.8%)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소득효과나 근로의욕 효과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둘째, 자활 조직변인이 자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조와 관련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 수 및 자활참여자 수가 수급자의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5]. 하지만 조직유형을 수행기관 특성별로 본 경우는 부재한데 본 연구에서 기존의 심리사회적 전문서비스를 담당해 왔던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간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2.2.3 자활프로그램 관련 요인

자활기관에서 수행하는 자활프로그램 만족도가 자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상록·전재문(2003)[8]은 수급자에 대한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자활근로형태 중 공익형 프로그

램이 시장형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면서 현행 자활사업 프로그램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엄태영 외(2008)[11]은 가사간병 자활사업 참여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활사업 실무자의 사업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정서적 자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외 Greenberg & Robins(2011)[25]과 Precin(2011)[26]연구에서도 직업기초교육과 건강서비스는 복지에서 근로로의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해 개인특성요인으로 연령, 가구원수, 건강, 교육수준, 근로경험,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며, 자활사업특성요인으로 자활사업 참여기간, 조직유형, 그리고 자활프로그램 요인으로는 프로그램 만족도로 구성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활프로그램 중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직접 방문을 병행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43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활기관의 참여자 2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여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 동안 수집하였다. 최종 데이터는 18개 기관의 178명(71.2% 응답율)의 응답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및 사회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검증에 활용하였다.

3.2 변수정의 및 측정

3.2.1 종속변수

가. 정서적 자활

정서적 자활에 대한 측정은 이상록·전재문(2003)[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자활사업 참여 이후에 경험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 ‘자발성 향상’, ‘심리정서적 안정’, ‘미래에 대해 희망이 생김’에 관한 것으로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Cronbach's $\alpha = .882$).

나. 사회적 자활

사회적 자활에 대한 척도는 이형하·조원탁(2004)[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자활사업 참여 이후에 경험한 ‘가족관계의 향상’, ‘대인관계의 개선’, ‘사회적 참여가 많아짐’으로 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Cronbach's $\alpha = .810$).

3.2.2 독립변수

가. 개인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연령, 요보호가구원 수, 건강상태, 교육수준, 근로경험, 삶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요보호가구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 수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자활특성 요인

자활특성 요인은 자활사업 참여기관과 조직유형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사업 참여기간은 자활사업에 참여기간을 월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 조직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사회센터와 지역정신보건기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0으로, ‘정신보건기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1로 측정하였다.

다. 자활프로그램 요인

자활프로그램 요인은 사회적응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세부 프로그램별로 즉, 생활상담, 교육프로그램, 건강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연구분석 결과

4.1 조사대상의 기술 분석

4.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40, 50대가 전체 76.4%로, 50대가 가장 많고 40대, 60대순으로 중장년층 비중이 높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Division	Frequency	%
Age	20 - 29	2	1.2
	30 - 39	15	9.1
	40 - 49	60	33.3
	50 - 59	71	43.1
	60 - 66	22	13.3
Needy family in household	0	103	57.9
	1	28	15.7
	2	19	10.7
	3	16	9.0
	4 or more	12	6.8
Health	Very bad	33	18.5
	Bad	56	31.5
	Normal	47	26.4
	good	27	15.2
	very good	12	6.7
Education	less elementary school	8	5.1
	elementary school	24	15.4
	Middle school	41	26.3
	High school	56	36.5
	College & University	22	14.1
Master or higher	4	2.6	
Work Experience	Yes	140	87.0
	No	21	13.0
Duration of participation	Less than 12 month	67	38.7
	between 12 and 24	31	17.9
	between 24 and 36	28	16.2
	between 36 and 48	19	11.0
	between 48 and 60	14	8.1
60 month or more	14	8.1	
Type of Organization	Self-Sufficiency centers	77	43.3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or welfare centers	101	56.7

둘째, 요보호가구원은 요보호 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전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5%로 가장 많고, 보통 수준이 26.4%, 아주 나쁘다는 경우가 18.5%로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졸이 26.3%, 초졸이 15.4%로 의무교육 수준 이하의 교육수준의 응답자가 41.7%로 상당히 취약한 학력 특성을 보이는 반면 자활사업 참여 이전 과거 근로경험은 응답자 중 근로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가 87.0%로 대다수가 근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경험이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이므로 근로경험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자활사업 특성상 자활 참여기간을 살펴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43.4%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이상 24년 미만이 25.6% 순으로 나타났고, 36개월 이상 장기 참여자들이 전체 응답자 중 31.3%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장기 참여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복지수급자의 장기화는 근로유인이 떨어지는 자활정책상의 문제와 자활참여자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있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11]. 더불어 자활조직 요인으로서 참여자가 속한 수행기관의 조직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가 43.3%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 56.6%로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1.2 주요 변수들의 기술 분석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자활 효과에 대한 주요 변수의 기술 분석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자활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보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3.60점으로 가장 높고,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3.58점, 생활상담 만족도가 3.5점 순으로 자활프로그램 만족도가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삶의 만족도는 3.01점으로 이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 효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자활의 평균은 3.51점으로, 사회적 자활의 평균은 3.26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서적 자활이 사회적 자활보다 점수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main variable

Variable	Min	Max	Mean	S.D
Satisfaction of counseling	1.00	5.00	3.50	1.30
Satisfaction of education	1.00	5.00	3.60	1.20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1.00	5.00	3.58	1.34
Satisfaction of life	1.00	5.00	3.01	1.07
Emotional self-sufficiency	1.00	5.00	3.51	1.01
Social self-sufficiency	1.00	5.00	3.26	1.08

4.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수준과 근로경험은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근로경험이 없을수록, 참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행기관 조직유형은 근로경험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근로경험이 있을수록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근로경험이 없을수록 정신보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기관 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추정된다.

더불어 자활효과와 관련하여 정서적 자활에는 삶의 만

<Table 3> Correlation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Age	1												
2. Needy family in household	-.32**	1											
3. Education	-.28**	.16*	1										
4. Work experience	-.12	.16*	-.01	1									
5. Duration of participation	.06	-.10	-.16*	-.16*	1								
6. Type of organization	.09	.04	-.08	-.26**	.14	1							
7. Level of mental health	.04	-.08	.09	-.18	.17	.15	1						
8. Satisfaction of life	.06	.04	.05	-.04	-.13	-.08	.30**	1					
9. Satisfaction of counseling	.07	.13	.08	.12	-.19*	.07	-.05	.01	1				
10. Satisfaction of education	.02	.14	-.11	-.01	-.14	-.01	-.11	-.05	.46**	1			
11.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06	.16	.14	.18	-.38**	.08	-.08	.06	.61**	.61**	1		
12. Emotional self-sufficiency	.08	-.03	-.21	.06	.14	.16	.11	.44*	.10	.40**	.44**	1	
13. Social self-sufficiency	.17	-.03	-.13	.02	.08	.15	.22	.12	.58**	.62**	.75**	.83**	1

*p<.05, **p<.01

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적 자활에는 생활상담 만족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체로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관계성을 보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 정서적 자활 및 사회적 자활 영향요인

자활참여자들의 자활 성과에 관한 영향 요인을 <Table 4>에서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자활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Model 1 개인특성변인과 조직특성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어 자활프로그램 변인을 투입한 결과, Model2에서는 요보호 가구원수가 정서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보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자활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처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가구원에 대한 보호·양육부담은 정서적 자활에도 지대한 근로장벽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자활프로그램 요인 중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정서적 자활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자존감 향상이나 근로의욕 증진, 직업적응교육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자신과 근로활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와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활 영향요인으로는 Model 1에서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을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없는 반면, 자활프로그램 변인을 투입한 Model 2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조직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참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급자의 긍정적 심리적 변인이 사회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조직유형에 있어 지역자활센터보다는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기관일수록 사회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하위단계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 특성상 전문인력, 시설 등이 취약하고 잦은 실무자 이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지역자활센터보다는 심리사회서비스 전문기관인 지역정신보건센터 및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활에 있어 자활프로그램 변인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정서적 자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졌고, 건강서비스 만족도는 사회적 자활 즉, 대인관계나 사회 참여의 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of welfare recipients

Variable	Emotional self-sufficiency				Social self-sufficiency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S.E	β	S.E	β	S.E	β	S.E
Age	.213	.040	.151	.025	.275	.066	-.630	.048
Needy family in household	.134	.134	-.331*	.093	-.189	.214	-.178	.126
Education	-.036	.085	.194	.054	-.228	.114	-.191	.062
Work experience	-.035	.210	.152	.142	.096	.241	.280	.137
Duration of participation	.106	.010	.096	.007	-.227	.014	.713	.011
Type of organization	.137	.472	.249	.299	.254	.510	.273*	.257
Level of mental health	.246	.242	-.109	.164	.006	.289	-.219	.175
Satisfaction of life	-.017	.239	.252	.163	-.149	.274	.969*	.262
Satisfaction of counseling			.001	.134			-.453	.191
Satisfaction of education			.955*	.208			.855*	.243
Satisfaction of health SVC			-.025	.186			.753*	.235
R2	.162		.717		.396		.912	
R2 Change	-		.555		-		.515	
F	.483		3.922*		.739		5.644*	

*p<.05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자활프로그램 중 가장 자활가능성이 미약한 수급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 효과와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자활은 3.51점(5점 만점), 사회적 자활은 3.26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긍정적 수준으로, 자신 및 근로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정서적 변화가 사회적 관계의 변화 보다 더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사업 중 가장 하위단계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리 사회적 취약성을 감안한다면 자활지원사업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기 쉬운 빈곤층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을 얻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에 경제적 자활의 선행 단계이자 과정적 성과로써 자활평가에 사회심리적 차원의 자활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둘째, 개인특성 변인 중 보호호가족원은 정서적 자활에 유의미한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가족 내 만성 질환이나 비경제활동 가족 등의 가구특성은 빈곤여성의 가사부담을 증대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22], 본 연구결과 복지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도 위험 요소로 검증되었다. 이런 점에 비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나 생활의욕 향상 등의 정서적 변화를 위해 자활참여자의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총체적인 여건을 고려한 가구별 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하리라 본다.

셋째, 심리적 변인 중 삶의 만족도가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간 복지수급자의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레질리언스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변인은 복지의존을 낮추고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비록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소득에 중점을 둔 경제적 자활이 어렵다고 해도 자활사업을 통해 삶의 의욕과 만족도가 향상된다면 무력감을 타파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조직유형과 관련하여 지역 보건복지기관이 지역자활센터보다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는 심리사회서비스 전달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보건복지기관에 비해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등이 취약하고 잦은 실무자들의 이직으로 사업 수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최근 전달체계에 관한 개선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

구,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과 적절한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례관리체계가 도입되었는데 이 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내 고용, 보건, 복지 서비스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나 통합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를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추가적인 인력배치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다섯째, 자활프로그램 요인 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정서적, 사회적 자활 모두에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내 교육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이나 근로의욕 증진, 직업적응교육과 같은 수급자의 자신과 근로활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와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지지기반을 갖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무조건적인 취업기술훈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 전 지속적인 근로동기 유지와 근로태도의 향상 및 자립 전망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활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활프로그램 중 건강서비스 만족도는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대다수가 건강상태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건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대인관계나 사회적 참여 변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근로능력 있는 복지수급자의 우울증, 대인기피, 알콜중독 등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근로장애와 장기 복지수급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상자 판정체계와 적합한 전문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자활지원사업이 빈곤탈출이라는 성과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칫 사회적으로 격리되기 쉬운 빈곤층들이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자활사업의 강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적, 사회적 자활이 객관화하기 어려운 성과이나 자활지원사업 평가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의의가 있겠다. 다만 본 연구는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만 초점을 둔 한계가 있는 바 향후 경제적 자활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자활 효과 측정과 이들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H. Shin, Characteristics of self-sufficiency program for welfare-to-work in Korea, *Urbanity and Poverty*, Vol. 84, pp. 69-92, 2007.
- [2] Hawkins, R. L., From self-sufficiency to personal and family sustainability: A new paradigm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 32, No. 4, pp. 77-93, 2005.
- [3] I. S. Kim, An exploration on the reconstruction of self-sufficiency concept : Focused on the self-sufficiency of the Prostitut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2, pp. 95-129, 2008.
- [4] D. M. Nor, The performance and issues of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Report of Self-Sufficiency*, pp.157-178, 2006.
- [5] H. H. Lee & W. T. Cho, Factors Influencing Self-Sufficiency Effect of Workfare in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Social Welfare Policy*, Vol. 20, pp. 217-244, 2004.
- [6] W. O. Jung & J. G. Kim, Subjective evaluation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on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28, pp. 35-67, 2005.
- [7] Edwards, M. E., Plotnick, R., & Klawitter, M., Do attitud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 social 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welfare use by young women, *Social Science Quartley*, Vol. 82, No. 4, pp. 817-827, 2001.
- [8] S. R. Lee & J. M. Jin,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ntipoverty policy in local community : focusing on the self-support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2, pp. 241-272. 2003.
- [9] K. S. Park & N. H. Park, *The Survey of Life of Poor Women and Self-Sufficiency Program*, The Department of Women Policy, Gyeonggi-do, 2001.
- [10] N. S. Kang, E. J. Shin & J. H. Su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recipients 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self-reliance in the national protec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19, pp. 23-50, 2002.
- [11] T. Y. Um, D. K. Kim & M. K. Heo,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bout staff at the community self-help center, support of colleagues and emotional self-support, and mediation effect of self-respect of female participants in self help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18, pp. 1-24, 2008.
- [12] Philip, P. H., Vamadu, A. S., & Sandra, R. N., A bottom-up definition of self-sufficiency, *Qualitative Social Work*, Vol. 8, No. 3, pp. 357-376.
- [13] Johnson, T. R., & Stromsdorfer, E. W., Evaluating net program impact, In *Evaluating Social Program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The JTPA Evaluation Design Project*, MI: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p. 43-131, 1990.
- [14] Amy, L. E. S., Situation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uccessful transitions from welfare to work,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2000.
- [15] K. S. Kim & C. H. Kang, Study of labor entry of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n exploration of the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2, pp. 5-32, 2003.
- [16] Danziger, S. K., Ananat, E. O., & Browning, K. G., Childcare subsidies and the transition from welfare to work", *Family Relations*, Vol. 53, pp. 219-228, 2004.
- [17] Corcoran, M., Danziger, S. K., & Tolman, R., Longterm employment of African American and White welfare recipients and the role of persistent health and mental health problems", *Women & Health*, Vol. 39, pp. 21-32.
- [18] Lee, S. J. and Vinokur, A. D., Work barriers in the context of pathway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to-work cli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4, pp.301-312, 2007.
- [19] Hogan, S. R., Unick, G. J., Speiglmán, R., & Norris, J. C., Gender-specific barriers to self-sufficiency among former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drug addiction and alcoholism beneficiari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37, pp. 320-337, 2011.
- [20] Danziger, S. K., Corcoran, M., Danziger, S., Heflin, C., Kalil, Levine, J., Rosen, D., Seefeldt, K., Siefert K., & Tolman, R.,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 Recipients*. New York, The Russell Sage Foundation, 2000.
- [21] D. M. Nor, S. J. Lee, and S. H. Kim, *Assessment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olicy on Self-Relian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ffairs, 2010.
- [22] J. Y. Yeo, Study on gender poverty gap : Focusing on urban area,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23] Danziger, S. K., Carlson, M. J., & Henly, J. R. Post-welfare employ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omen & Health*, Vol. 32 pp. 47-49, 2001.
- [24] Kalil A., Schweingruber, H. A., & Seefeldt, K. S., Correlates of employment among welfare recipients: D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matt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9, pp. 701-723, 2001.
- [25] Greenberg, D., & Robins, P. K., Have welfare-to-work programs improved over time in putting welfare recipients to work?,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64, No. 5, pp. 910-920, 2011.
- [26] Precin, P., Challenges of welfare-to-work programs, *Work*, Vol. 38, pp. 39-56, 2011.

이 은 정(Lee, Eun Jun)



- 199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문학사)
- 199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문학석사)
- 2007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현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자활, 사회적기업, 지역복지
- E-Mail: ejlee@bu.ac.kr